

광주·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주문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광주지방국세청 등 6개 기관 국정감사

여·야 위원 “효과적인 지원책 필요...한국은행 싱크탱크 역할도”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공정과세 등 통해 국세행정 신뢰 높이겠다”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 위원들은 먼저 광주국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광주·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은 “호남지역의 경제 상황은 소비 위축, 설비투자 감소, 수출 감소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관기관의 획기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광주전남 GRDP상 건설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은행권의 금융대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건설업이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관세청이 일회성 지원이나 서류상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시)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별로도 모두 열악하다”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는 감소하는데 유독 부가세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은 “청년인구 유출 등을 막고 자생적인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광주-전주 고속도로 연결 등 자생적인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주문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저출생, 저성장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가 대표적 싱크탱크인 만큼 적극적인 백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 제공>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빚투 없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영하겠다”며 “공정과세와 권익보호 등을 통해 /박은성 기자

소프트웨어·AI 인재 육성 전쟁

도, 한국에너지공대서 내일까지 전남 미래채움 페스티벌

전남도는 24일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분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28일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전남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디지털 미래, 함께 키워가는 꿈나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전남지역 디지털 교육 선도와 소프트웨어·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제1회 나주교육박람회와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서는 나주시 소프트웨어·AI 코딩 로봇 경진대회,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캠프, 소프트웨어·AI 교육 전시 및 체험부스, 미래교육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AI 교육 전시 및 체험 부스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AI와 로봇 기술을 체

험하며 디지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전남 소프트웨어 미래채움강사들이 직접 개발한 우수 소프트웨어·AI 융합교육 수업과정안을 바탕으로 총 3회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캠프에서는 체험·탐구 중심의 코딩 교육을 통해 특별한 교육 경험을 선사한다.

나주시 소프트웨어·AI 코딩 로봇 경진대회는 28일까지 초·중·고 학생, 중학생 부문으로 각각 진행된다. 나주 5개 초등학교 8팀 16명, 5개 중학교 20명의 학생이 참가해 ‘나주시 영산강 살리기’란 주제에 대해 혁신적 제안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프로젝트 발표와 직접 제작한 AI 로봇으로 미션을 해결하는 로봇경기를 합산해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을 각 1팀씩 선정한다. 이외에도 나주 교육박람회와 함께 미래교육특강, 스태프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가 진행된다.

/양시원 기자

꽃시장, 지역 보훈단체와 ‘만남의 날’ 행사

민·군 공향 이전·세계양궁대회 성공 힘 모으기로

강기정 시장은 24일 광주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9개 보훈단체와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광주 민·군 공향 통합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광주시는 각종 보훈 기념행사 개최, 보훈회관 관리,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명절 위문금 지원 등 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현재 참전·보훈수당 인상을 위

해 광주시의회와 조례 개정 등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보훈의 첫 번째는 우리 장병들을 탄탄히 잘 지켜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훈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다”며 “정춘을 바쳐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셨던 만큼 이제는 광주시가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 강화로 보답하겠다. 헌신에 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7개 분야 2천152억 들여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

전남도는 24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리시설과 기계화 경작로 등 7개 분야에 2천152억원을 투입, 그동안 영농활동으로 시행이 지연됐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은 저수지 개보수 및 준설, 양배수장, 용배수로 정비, 흄수로 구조물화, 기계화 경작로 확보장 등이다.

전남도는 132지구에 839억원을 들여 노후 저수지의 제방, 물넘이, 사통·복통 재설치, 사전방류수문 설치 등 시설 개량과 기능이 저하된 양수장

과 배수장을 개선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도 영농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착수한다. 연말까지 40개소에 총 209억원을 들여 126만㎡의 토사를 준설, 저수지의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8지구 259억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23지구 1589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2024 청정완도 가섬여행

2024. 10. 25.(금) ~ 10. 27.(일)
신지 명사십리 완토리니 일원(명사십리길 85-207)

주최: 완도군 | 후원: 청정완도가섬여행추진위원회

10.25. (금) 어섬 블루 치유 콘서트
신성, 미스김, 김추리, 민수아, 하나영 출연
10. 25. (금), 18:00 ~ 20:00

10.26. (토) 어섬 청춘 리스펙 콘서트
수퍼비, 행주, 블랙나인, 마린 출연
10. 26. (토), 18:00 ~ 20:00

TIME	10. 25 (금)		10. 26 (토)		10. 27 (일)
	완토리니 이벤트 광장	기타	완토리니 이벤트 광장	기타	완토리니 이벤트 광장
13:00 - 14:00					가을섬 힐링 아트 페스타
14:00 - 15:00	악기 세팅 점검 리허설		제1회 명사십리 치유길 맨발걷기 페스티벌	약산 해안치유 숲캉스 버스킹 (약산도)	해양치유 fall in 버스킹 / 폐회
15:00 - 16:00	해양치유 fall in 버스킹		가을섬 힐링 아트 페스타		
16:00 - 17:00	리허설		해양치유 fall in 버스킹		
17:00 - 18:00					
18:00 - 19:00	어섬 블루 치유 콘서트	가을섬 정월 버스킹 (해변공원)	어섬 청춘 리스펙 콘서트		
19:00 - 20:00					